

#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에 관한 성경적 한 이해

칼빈대 아동보육과 김학영

남성과 여성은 초월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참된 인간의 자아가 자신을 주관적으로 알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성(性, gender)이라는 요소도 있는데, 그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각기 다르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며 성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셨다. 그런데 아담의 처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남자와 여성의 고유한 성의 역할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와 깨어진 관계성을 가지게 되었다. 타락 이후의 불완전한 지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남여성의 성 역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 1. 처음 창조에 비추어 본 남자와 여자의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기

우리네 인간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서로는 불쌍해지고 활기를 잃는다. 그런 것을 죄성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죄로 인해 연약해진 인간은 서로 만나면서 서로의 연약성에 부딪히게 된다. 타락한 남성과 여성도 연약함과 죄의 본질을 지닌 채 만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극복해야 할 우리의 연약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 나온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상대의 본성을 내가 지배하거나 소유할 수 없음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 2.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점에서 본 남녀 관계

한 성경 구절을 참조해 보기로 하자. 삼상 16:7: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대개 겉모양에 관심 가지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 속에 있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하신다. 히브리어에서 중심이란 말은 그의 마음, 사고방식, 속에서 목적하는 의도, 목표 등의 포괄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중심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중심을 통하여 대화하시며, 일하신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그 중심에는 성의 심리도 포함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실 때 여성이면 여성으로써 성의 중심을 보시고, 남성이면 남성으로써 성의 중심을 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을 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있어서 여성이면 여성으로써, 남성이면 남성으로써 성의 역할을 감안하고 각자의 성의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창조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여성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본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창조하신 여성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나는 감히 생각해

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으나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는 없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적절히 응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여 남성이든 여성이든 본질상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지으신 한 존재로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이도 인정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답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 3. 성경적 여성성이란 무엇일까?

이 어려운 질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는 절대적 진리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의 믿는 바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겸손히 시도해 보는 것이니 과히 나무라지 마시기 바란다). 남성으로 오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낮추고 회개하고 연약해지는 것은 참된 여성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 만일에 우리가 여성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중대한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 분의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동안에 자신 안에 창작 행위, 죄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 무한한 사랑의 의지, 용서 등을 강화시켜 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남성성을 본받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델로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화되며,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 4.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결론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역할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닌다.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주 안에서는 동일하다. 두 성은 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피조된 성이다. 두 성이 상대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서로 대립되고, 영원히 두 성의 대립은 극복될 수 없다. 그러나 두 성이 그러한 자신들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존해서 회개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면 갈수록 그들은 상대의 성에 대한 “나”가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 즉 주님에 대한 “나”로 완성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될 때만 각기 다른 두 성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서로의 차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사랑하여 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의 실현이 아니겠는가?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잘 나타나도록 우리들이 앞서서 노력해 가기를 원한다.